

#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관리 강화

## 문화재청 사찰·개인·문중소장 725건 실태조사

### 도난방지시설·훼손문화재 보수 지원

### 금당사 괘불탱 국고보조로 보존처리



◇올해 보존처리에 들어가는 무위사 극락전내벽 사면벽화(보물 1315호)

국가지정문화재 중 불상이나 불화, 서적 등 움직일 수 있는 동산문화재의 보존 관리가 강화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1~12월 국가 지정 동산문화재(983건) 중 사찰이나 개인, 문중이 소장하고 있는 725건(국보 128건, 보물 597건)에 대해 종합실태조사를 벌였다. 개인소장 동산문화재의 훼손 여부나 도난방지 대책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태조사 결과 사찰의 성보박물관 등은 현대적 수장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어 보존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일부 산간 오지에 위치한 사찰이나 개인, 문중 소장 문화재의 경우 도난위험과 훼손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장문화재과 연구관은 "훼손돼 보수나 보존처리가 필요한 문화재가 20여 건, 화재나 도난경보기 등 안전장치 미비가 20여 건인 것

#### ◆소장처별 현황

종별	계	국유	대학박물관	사찰박물관	사설미술관	사찰	사유	문중	서원
국보	218	90	13	11	48	29	25	1	1
보물	765	168	48	86	79	166	187	23	8
계	983	258	61	97	127	195	212	24	9

로 파악됐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난방지시설 설치 지원, 훼손문화재의 보수 및 보존처리, 영인본(모사도) 제작 지원 등 다양한 보존관리 방안이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에는 금당사 괘불탱(보물 1266호) 등 14건을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보존처리할 예정이며 탑사 동종(보물 88호)과 무위사 극락전 벽화(보물 1315호) 등 4건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존처리를 의뢰했다.

국고보조를 받지 못한 나머지 문화재는 '문화재 긴급 보수 및 사후관리비' 7억2천여만 원을 긴급 투입해 △흥국사 대웅전 후불탱(보물 578호) △파계사 영산회상도(보물 1214호) 등 6건을 보존처리하고, 대구 파계사 목조관음보살좌상(보물 575호) 등 3건은 도난·화재경보장치 설치,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불좌상(보물 980호)은 보호시설인 대웅전을 보수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 '새만금갯벌' 간척중단 촉구

## 생명평화연대, 노당선자에 친환경정책 요구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공동대표 수경스님, 문규현 신부)는 7일 충북 원주 토지문화관에서 새만금 살리기 위한 '대화마당'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새정부에 간척사업의 조속한 중단을 촉구했다. 수경스님(불교환경연대), 박경리(소설가), 김지하(시인), 문규현 신부(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이주향(수원대 철학과 교수), 최열(환경연합 사무총장), 임진택(연총가), 임옥

상(화가) 등 불교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 50여명은 새정부가 생명존중과 인간·자연의 공존을 위한 친환경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이들은 정부가 추곡수매를 인허하고, 쌀 수매량을 줄이는 등의 갑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지조성목적의 새만금 간척사업은 더이상 필요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다음 주 상세 보도)

## 불교사회운동연대 추진

### 불교인권위등 20여단체

불교계 단체들이 현안이 되고 있는 사회문제에 발빠른 대응을 위한 연대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불교인권위원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표자 및 집행책임자들은 5일 불교인권위 사무실에서 1차 모

임을 갖고, 사회문제에 불교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 위해선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부산 문수사 문수불교 청년회 등 각 사찰 청년회도 지지 의사를 밝혀 현재까지 20여개 단체가 연대에 동참하고 있다. 불교인권위 조혜은 간사는 "17일 열리는 2차 준비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내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 난치병 치료위한 체세포 복제허용

### 보건복지부, 법안마련

정부는 난치병 치료를 위해 체세포 복제를 허용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6일 확정했다. 피기부와 협의의 통해 이번 법률안을 마련한 보건복지부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이 법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안은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누구도 체세포 복제를 할 수 없다"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난치병 치료 목적에만 체세포 복제를 허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명우 기자

## 용흥사 삼불회 괘불탱

### 문화재청, 보물지정 예고

석가모니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등 삼세불이 표현된 용흥사 삼불회 괘불탱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최근 "경북 상주시 용흥사의 삼불회 괘불탱을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용흥사 삼불회 괘불탱은 길이가 10m가 넘는 대형 괘불로 1684년경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앙에 석가모니불을 위시해 좌측에 약사여래불과 우측에 아미타불을 배치하여 삼세불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박원구기자

## 아프간 바미안석불 25일 걸쳐 파괴

### 불상에 구멍뚫고 폭약넣은 후 폭파

#### AFP통신, 작업에 동원된 포로 증언 공개

2001년 3월 13일, 미국 CNN방송을 시청하던 전 세계인들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계 최대 석불인 바미안 대불이 아프가니스탄의 옛 탈레반 정권에 의해 폭파되는 장면을 지켜보야 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AFP통신은 최근 바미안 대불 폭파 작업에 동원됐던 한 포로의 생생한 증언을 공개했다. 당시 집권 탈레반 세력에 저항하던 민병대 소속 전투원으로 탈레반에 붙잡혀 포로 신분으로 석불 파괴

작업에 동원됐던 미르자 후세인(40)에 따르면, 바미안 계곡 동·서 양쪽 절벽에 있던 두 대불의 파괴 작업은 무려 25일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서쪽대불(55m, 3-4세기)은 석불 위쪽의 동굴에서 늘어뜨린 밧줄을 타고 석불머리에 큰 드릴로 구멍을 뚫었으며, 그 속에 다이너마이트를 넣어 폭파했다. 또 동쪽 대불(36m, 5세기)은 수백개의 모래주머니를 이용, 폭탄을 석불의 몸에 둘러 터뜨려 파괴했다. 권형진 기자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한 아프가니스탄 옛 탈레반 정권에 의해 지난 2001년 3월 12일에 파괴되고 있는 바미안석불.

## 교과서 종교편향 백서

조계종 총무원회는 최근 조종중 교과서의 내용 중 종교편향 부분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파라미타점스년 협의회가 제7차 교육과정 개편 내용을 분석해 밝힌, 국어 교과서 등에 나타난 불교 관련 내용의 오류를 정리한 것이다. 이번 백서는 불교 관련 기술상의 오류 및 교정 실수 25항목, 종교편향 7항목 등이 총 32항목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강유신 기자

## 북한산 관동도로 백지화 등

### 대통령직 인수위에 결단 촉구

불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북한산 관동도로 백지화와 수락산 불암산 구간 공사 중지를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연환경 보전과 수환경보전을 위한 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 위원장 성태)와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가 대통령직 인수위원

회에 "북한산 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법현스님(불교환경연대 조직실장), 최주영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 조사위원회 불교측 총괄위원(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등은 1월 30일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를 방문, △

관동노선 백지화 활동경과 △관동노선 문제점 △대안노선 예산안 △건의안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두 단체는 의견서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중 4.5.6 공구 현 실시계획노선 백지화 △5.6공구 공사 즉각 중단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안노선 선정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고속도로 공사지역 주민과 공사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5일 임채정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지 구당 사무실 앞에서 '공사 백지화 및 중단'을 요구했다. 남동우 기자

## 목탁소리

### 삼국유사 국보보류 유감

권형진 (취재1부 기자) "사람이 움직여야 하나, 유물을 옮겨야 하나?" 불상이나 불화, 서적 등 움직일 수 있는 동산문화재의 국보·보물 지정 심의를 둘러싼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국보 지정이 예고된 <삼국유사>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권1-5(보물 419-5호)가 운송 문제를 둘러싼 문화재청과 규장각의 신경전으로 국보 지정에서 보류됐기 때문이다. 규장각이 "운송 과정에서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보급 문화재를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고 버티자 문화재위원회는 현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정 가능성이 높았다. 얼마 전 지방 문화재위원회 심의 대상에 올랐지만 현품을 제출하지 못해 심의가 보류됐다. 동산문화재가 국보나 보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 유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관례로 굳어져 왔다. 문화재청은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동산문화재는 위장 문제가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갖고 오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원칙에는 대부분 동감한다. 그러나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중한 유물을 옮겨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도 있다. 전문가도 없이 소장자가 이송을 맡으면 유물이 훼손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문화재위원 몇 명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은 있다. 하지만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보존의 기본 원칙인데도 최고의 전문가들이 문화재위원들 스스로가 '편의' 때문에 '기쁜'을 너무 쉽게 무시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남동우 기자



## 2003학년도 삼화불교대 학생모집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과 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 전형 30%
개 호 복 지 사 과	2년	■주간 30명 ■통신 80명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각 종 단 승 러 · 포 교 사 · 30세 이상 이력서 전형 가능
불 교 학 과 (승려 학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통신 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5매	
	4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포 교 사 과 정	2년	■야간 30명		

2. 학교연혁  
1989. 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준 고등학교 인준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 배출(다기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사 포교사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대학 문교 체결·중국어로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0. 2.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1. 1. 중국 한의대 본과 34명 합격  
2001. 9. 제11회 졸업생 배출  
2002. 2. 중국 남경효정대학(사범대) 문교 체결  
2002. 9. 중국 한의대 본과 50명 합격  
2002. 11. 중립삼화불교대로 확정

3. 특 전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포교사 자격취득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개호복지사 2급 자격 취득  
·중국 남경중의대학(한의대) 본과 입학 가능  
·중국 남경포경대학(사범대학) 3년 편입 가능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3년 2월 20일까지  
·전 행 방 법: 서류전형(우선 당일 소인 유효)

·본교 교학과: TEL. 02)511-2026-8 FAX. 02)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www.samhwade.com  
E-mail: samhwadea@hanmail.net  
·일본동경분교: TEL 047) 376-1321,132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학원  
삼 화 불 교 대

## 한 의 과 대 학

■석사·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학 재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 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영문) ◇ 대학 졸업사(전공불문) ◇ 최종학교 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 입학 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4년대학 학사과정 졸업자)	

◇ 중국 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계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활용 기술사  
◇ 군입대 연가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3년 2월 20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주소: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화: 025-6798167 · 팩스: 025-6798168

▶ 한국 상담 안내처: 삼화불교대  
· 전화: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www.samhwade.com

◆ 교육부 학력 인정 ◆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과 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 전  
성적 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문의처  
①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02) 511-1080  
FAX: 02) 511-2028

삼 화 학 원 삼 화 불 교 대